

탄핵 인용에 금융시장 안도

증시 ↑ 환율 ↓ ... “불확실성 해소”

증시, 외국인 순매수로 돌아서 · 근본 변수 아니다... 환율, 안정세 찾아... 채권 금리, 큰 영향 없어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인용이 선고되자, 숨 죽이고 지켜보던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용과 '기각'을 놓고 시장의 전망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선고 결과를 통해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위기가.
코스피지수는 10일 오전 11시50분 현재 전일대비 2.69포인트(0.13%) 오른 2093.75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2082.31까지 하락했던 코스피지수는 선고 시간(오전 11시)이 다가오면서 나뭇잎이 줄어들었고, 오전 10시 41분께 반등에 성공했다. '인용' 선고가 내려진 11시20분 전후로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 상승세로 가닥을 잡았다.
장 초반 팔자에 나선 외국인이 탄핵 인용 이후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고 있다. 이 시각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21억원, 612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기관은 97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도 상승세로 반전해 전일대비 0.20% 오른 201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 SK하이닉스(1.25%), 삼성물산(0.42%), 아모레퍼시픽(1.83%), 신한지주(0.64%) 등도 상승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탄핵 인용이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일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증시의 방향을 바꿀 만한 근본적인 변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증시에 일시적으로 단계적인 반응은 일어나겠지만 증시에 근본적인 변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케이프투자증권 운용교 연구원은 “탄핵이 인용돼 여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냈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스닥지수도 반등에 나서고 있다. 지수는 전일대비 1.04포인트(0.18%) 하락한 607.24에 거래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EG는 전일대비 11.53%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들휴브레인과 우리들제약은 각각 1.79%, 0.27% 상승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탄핵 선고 직후 오히려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다.
같은 시각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58.1원)보다 2.3원 내린 1155.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58.1원)보다 2.9원 오른 1161.0원에 출발했다. 탄핵 심판 선고 직전 1160원대 근처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선고가 끝난 11시50분 현재 1155.8원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채권 금리는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탄핵 선고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1.5bp(1bp=0.01%) 오른 1.804%를 기록 중이다. 5년물(2.017%, +1.4bp), 10년물(2.341%, +2.3bp), 20년물(2.408%, 3.1%) 금리

도 상승폭이 크진 않은 상황이다.
NH선물 민경원 연구원은 “외환시장에서는 일단 탄핵 심판의 영향은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 인식이 강한 것 같다”며 “선고 도중 이점미 현재 소장 대행의 발언에 따라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인용 결정 직후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민 연구원은 “기각이 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었겠지만 시장에서는 예상했던대로 인용이 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대우 김민형 연구원은 “채권 시장은 현재 선고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라며 “기각이 됐다면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 수 있었는데 인용이 되면서 오히려 금리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향후에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 이슈보다는 3월 FOMC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오늘날 나오는 미국 고용지표에 따라 방향성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뉴스

대기업 수사 본격화 되나

SK·롯데·CJ 초비상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와 롯데, CJ 등도 초비상이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하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업들은 매우 긴장된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구성한 뒤 박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칼날은 SK, 롯데, CJ 등으로 향할 수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SK그룹과 롯데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원과 45억원을 대가성으로 출연한 의혹을 받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111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이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미르·K스포츠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으며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물려받았다는 점을 두고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등과 독대를 했을 당시 면세점 특혜권 획득을 위한 대가성 청탁 등이 오갔다는 의혹 등이다.
CJ그룹의 경우 이재현 회장 사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회장이 사면을 받은 뒤 차은택 전 참정경제추진단장이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1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대가성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각 기업들은 대가성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한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검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특별한 입장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 부분은 독대 이전에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 돼 있었고 기재부 1일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던 부분”이라 해명했다. /뉴스

금융당국, “비상대응체계 즉시 가동”

임종룡 “금융시장 안정 첫번째 책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선고 직후 긴급 간담회의를 개최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금융부문 대응 방향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당국에게 주어진 첫번째 책무는 ‘금융시장 안정’인 만큼 금융위가 중심을 잡고 어느 때보다도 높은 긴장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24시간 비상상황실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실시간 점검할 방침이다.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상황점검회의도 열어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한다. 금융상황점검회의는 12일 오후 3시 임 위원장 주재로 진을



▲은 표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위기는 없을 것이며 실사 시장불안이 생겼더라도 이에 대응할 충분한 대응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시장의 불안과 우려를 분명하게 해소하기 위해 금융의 전 분야에 걸쳐 잠재된 리

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채권시장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1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 회사채담보부증권(P-CBO)과 회사채 인수프로그램을 13일 가동하고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기존에 마련된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a)도 필요시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환전전성 점검을 위해 각 권역별 외환전전성 및 외국인 자금유출입 동향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은 대선 정국이 예정된 만큼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정치 테마주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최근 북한 무력도발 등에 대비해 사이버 해킹 가능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뉴스

1월 보금자리론 판매 1조9060억원

동월 기준 역대 최고... 은행 주담대보다 금리 낮아 수요 몰려

대표적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이 올해 1월 1조9000억원 넘게 팔리며 동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중순 2%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보금자리론 금리가 올해 들어서며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 대비 금리가 낮아 목돈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1조 9060억원이다.
이는 지난 2004년 3월 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이후 동월 기준으로는 최고 판매액이다. 종전 최고 판매 실적은 지난해 1월 8239억원이었다.
1월은 전통적으로 주택시장 비수기로 꼽힌다.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2조 원에 육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년 전과 비교해봐도 판매액이 2배 이상 증가했고 1월 판매가 1조원을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보금자리론이 높은 판매고를 올린 가장 큰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부터 12월 까지

2.50~2.75%의 저금리를 유지하던 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 금리를 2.80~3.05%로 0.3%포인트 인상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택담보에 비해 여전히 낮다.
1월 기준 6대 주요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의 주택담보 평균 금리는 3.45%로 보금자리론 최고 금리보다도 0.4%포인트 높다.
1월 금리 인상의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2조9061억원, 2조8827억원 어치가 팔린 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 금리 인상이 이뤄진 뒤 1조원 가량 판매액이 줄었다.
월 판매액이 1조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7월(1조8873억원) 이후 6개월 만이다.
또다른 서민금융 상품인 적격대출은 지난해말에 비해 평균 대출금리가 낮아지며 판매액이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평균금리가 3.75%일 당시 적격대출은 3225억원 어치 팔렸지만 올해 금리가 3.47%로 떨어지며 판매액은 4273억원으로 늘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